

유식학의 진여(眞如)와 라캉의 실재(réel)에 관한 비교연구

안환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philotibet@hanmail.net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라캉과 유식학의 인식구조 |
| II. 라캉과 유가행파의 만남 그리고 그 사
건의 의미 | V. 라캉의 실재계와 유식의 원성실성(圓
成實性) |
| III. 심리공간과 언어 | VI. 맺는 말 |

요약문

본 논문은 유식학(唯識學)과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진여(眞如)’와 ‘실재(réel)’의 의미 및 그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진여’는 유식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경지며 ‘실재’는 라캉에게 있어서 상상계 너머에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두 이론에 관한 비교연구는 ‘욕망’과 ‘언어’에 국한해서 진행되었을 뿐 ‘진여’와 ‘실재’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라캉의 ‘무의식’과 유식학의 ‘알라야식’을 ‘언어’의 측면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이어서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인식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유식학의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여’와 ‘실재’에 대한 각 이론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4S1A5A2A03064972). 필자는 이 연구결과를 2015년 10월23일 미디어붐다 아카데미가 주최한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에서 강연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강연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의 입장 및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방법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라캉은 언어체계가 이미 경험하기 이전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주체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지만, 유식학에서 언어체계는 또한 ‘식(識)’의 분화(分化)에 의해 생성된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해 생겨난다고 해석된다. 둘째, 라캉은 현생(現生)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거쳐야 할 단계로서 상징계에서 상징계로의 진입을 설명한다. 반면 유식학에서는 3가지 인식구조를 제시하며 이것은 전생(前生), 현생(現生), 내생(來生)의 세계 속에서 수행에 의한 변화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라캉과 유식은 차이를 보인다. 셋째, 라캉의 실재계는 상징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욕망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점이지만 상징계 속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라캉은 실재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승화’를 제안했다. ‘승화’는 잃어버린 대상이 주는 존재결여의 공허감을 환상적으로 충족시키려는 활동이다. 반면 유식학의 원성실성[진여(眞如)]은 집착이 사라진 상태에서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초월한 경지이다. 유식학에서는 수행을 통한 마음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궁극의 경지인 원성실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라캉과 유식학은 모두 고통, 근심, 불안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게 된다. 이 이론들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문제에 깊이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진여, 실재, 욕망, 언어, 수행, 승화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이론과 유식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욕망’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이론에 나타난 실재(réal)와 진여(眞如)의 의미 및 그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이후 정신분석학의 최고 이론가로 평가된다. 그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프로이트 이후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던 정신분석학계에 새로운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 라캉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자연인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욕망’과 ‘언어’의 관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유식학은 인도 대승불교의 한 학파인 유가행파의 이론이다. 유가행파는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고자 했던 자들이 모여서 만든 수행공동체이다. 그들은 마음의 작용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유식학은 욕망에 의해 생겨난 생각과 말들이 모두 언어의 작용이며 그 결과는 마음에 저장된다고 보고 있다.

두 이론을 살펴보면 모두 인간의 보편적 특성 즉 ‘욕망’과 ‘언어’의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각각의 이론을 정립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필자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두 이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첫째, 심리공간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라캉과 유식학의 해석을 비교해 본다. 둘째, 인식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두 이론을 살펴본다. 셋째, 유식학의 궁극의 경지와 라캉의 ‘욕망’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각 이론의 입장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아직까지 라캉의 실재계와 유식학의 진여(眞如)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 연구 상황에서, 본 논문은 실재와 진여의 의미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주로 현생(現生)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분석했던 라캉의 이론과, 전생(前生), 현생(現生) 그리고 내생(來生)을 총망라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한 유식학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 경지가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구해 볼 것이다.

II. 라캉과 유가행파의 만남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

라캉의 이론과 유식학은 그 형성배경이 다르다. 라캉은 20세기에 활동했던 반면 유식학은 4세기 경 인도의 무착(無着, 300-390)과 세친(世親, 320-400)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두 이론 사이에는 고대와 현대 그리고 인도와 유럽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간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은 인간의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욕망’과 ‘언어’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캉의 이론과 유식학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이로 인해 각각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두 이론을 동일한 장에 놓고 비교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두 이론이 각각 동양과 서양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럽문화권과 인도문화권의 접합 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으며 둘째, 라캉의 이론이 현상에게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유식학은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구원론적 목적 하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 준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철학 심화의 방편으로서 서양 인문학의 탐색」¹⁾은 왜 동양과 서양의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상이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서양의 인문학은 불교철학을 이해하고 깊이를 더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논문은 라캉의 욕망에 대한 해석을 불교에 적용하여 불교의 욕망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해석하고자 했다.

같은 맥락에서 라캉의 이론과 불교가 어떻게 소통될 수 있는지를 불교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라캉의 구조주의 언어관을 중심으로-」²⁾는 보다 구체적으로 라캉의 이론과 불교의 만남을

1) 이도홍, 「불교철학 심화의 방편으로서 서양 인문학의 탐색」, 『석림』 35집(서울: 동국대학교 석림회, 2000), pp.75-101.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욕망의 주체에 대한 라캉의 해석이 공(空)의 입장에서 자아를 해석한 불교의 입장과 같은 관점을 보이며, 언어에 대한 라캉의 관점을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 및 언어도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교육의 지침을 제시했다.

한편 「욕망의 주체에 의한 ‘심상(心像, samjña)’의 언어화-유식불교 ‘변계소집성’과 라캉의 ‘상징계’를 중심으로-」는 유식불교의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과 라캉의 ‘상징계(the Symbolic)’가 마음에 생겨난 영상 즉 ‘심상(心像, samjña)’이 언어화되는 양상을 설명 하는 주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인간의 욕망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한 논문이다.³⁾ 이 연구는 ‘욕망’에 의해 생겨난 ‘언어’가 이후 문화체계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교와 라캉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자들 이외에도 서양학자들의 연구도 있다. 선(禪)불교와 정신분석학인 라캉의 이론을 비교분석한 *The Signifier Pointing at The Moon: Psychoanalysis and Zen*은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선불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힌 연구이다. 저자는 두 이론사이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이 연구서가 둘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⁴⁾ 필자가 보기에 이 책은 무엇보다도 라캉의 ‘실재계(Real)’가 불교의 ‘공(空)’의 특성을 지닌다고 해석함으로써 두 이론 간의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연구논문인 “Lacan avec le Bouddha: Thoughts on Psychoanalysis and Buddhism”은 불교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⁵⁾ 특히 불교 가운데 유식학의 알라야식을 라캉의 무의

2) 박범석,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라캉의 구조주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pp.1-17.

3) 안환기, 「욕망의 주체에 의한 ‘심상(心像, samjña)’의 언어화-유식불교 ‘변계소집성’과 라캉의 ‘상징계’를 중심으로-」, 『회당학보』 제18집(서울: 회당학회, 2013), pp.349-380.

4) Raul Moncayo, *The Signifier Pointing at The Moon: Psychoanalysis and Zen* (Karnac, 2012).

식(Unconscious)과 비교했다는 점은 필자가 유식학과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과도 연결되는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기의 논문들은 모두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에 국한해서 욕망과 언어, 욕망의 주체문제를 불교와 비교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라캉의 실재계와 유식학의 진여(眞如)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와 ‘진여’는 라캉의 이론과 유식학에서 각각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두 개념에 대해 각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해석을 통해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심리공간과 언어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유식학은 모두 인간의 심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경증, 불안, 히스테리 등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은 모두 인간의 마음에 집중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었으며, 수행의 과정 또한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 해탈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라캉과 유식학의 주요대상인 심리공간을 ‘무의식’과 ‘알아야식’으로 보고 이를 언어와 관련해서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기로 하겠다.

1. 라캉의 ‘무의식’ 과 언어

1901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태어난 라캉은 고등사범학교에서 처음으로 철학을 접했고 이후 의학과 정신병리학을 배우게 된다. 이후 1932년에 그는 의학 학위를 취득하였다.⁵⁾ 라캉은 1930년대 초현실주의 화가, 작가들의 ‘무의식’에

5) Mario D’Amato, “Lacan avec le Bouddha: Thoughts on Psychoanalysis and Buddhism”, *Theology After Lacan: The Passion for the Real*, edited by Creston Davis, Marcus Pound and Clayton(Cascade Books, 2014).

6) 라캉의 대표 저서는 『에크리(Écrits)』와 『세미나』이다. 이 가운데 『에크리(Écrits)』는 라캉이 출

대한 탐구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언어학적으로 탐구하는 데에 일찍이 관심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이후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L'inconscient est structuré comme un langage)’는 주장을 하게 된다.

라캉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억압된 표상으로 정의했다. 즉 ‘의식’이 불쾌한 표상이나 기억을 쫓아내고 망각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억압된 것이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며, ‘무의식’에는 의식되지 않으면서 의식과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로 성적인 욕구와 에너지에 기인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라캉은 이와 달리 ‘무의식’의 언어적 본성을 강조하게 된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그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라캉은 언어야말로 ‘무의식’의 조건이라는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⁷⁾ 그리고 라캉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소쉬르의 언어학을 정신분석에 도입했다.

소쉬르에 의하면 언어의 구조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개인과도 무관하게 사회적 규약으로서, 객관적 구조로서 존재한다.⁸⁾ 다시 말해 기호가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기호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기호들을 조직해 내는 고유한 규칙에 의해서이며, 이러한 규칙을 언어구조라고 부른다. 라캉 또한 언어와 그 구조는 각각의 ‘주체’가 그 정신적 발전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보다 앞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⁹⁾

라캉은 언어를 사용하려는 어떠한 개인도 그 기호들이 조직되는 그 규칙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기호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의도

판의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한 책이다. 그는 주로 강연, 토론을 통해 그의 사상을 심화시키고자 했는데, 그의 강의 녹취록을 출판한 것이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그의 사위 자크알랭 밀레(Jacques-Alain Miller, 1944-)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한다(김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서울: 살림, 2007), pp.33-38. 참조).

7) J. Lacan, "Preface by Jacques Lacan", A. Lemaire, *Jacques Lacan*, tr. by d. Macey(Routledge & Kegan Paul, 1977);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역, 『자크 라캉』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p. 20-21.
8) 페르디낭 소쉬르, 최승연 역,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 민음사, 1990), pp.20-26.
9) J. Lacan, *Écrit: A Selection*, trans. A. Sheridan (Routledge, 1977), p.148.

가 아니라 언어적인 규칙들에 의해 정의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는 언어체계에 종속된 존재로 나타난다. 나아가 ‘주체는 그 자신의 고유한 이름(기표)을 통해서만 자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¹⁰⁾

이 시점에서 라캉은 인간의 ‘주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으며 그 형성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라캉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능하다. 프로이트가 그리스 신화인 오이디푸스 이야기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이 신화적 이야기를 모든 인간이 유아기에 품는 무의식적 환상의 원형으로 재해석한 반면,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아이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욕망하는 주체로 태어나는 주체화의 과정으로 재해석했다.

라캉에게 있어서 인간의 ‘주체’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징계 즉 사회 속에 존재하는 법, 도덕, 문화, 가치관 등과 같은 언어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생겨난다. 상징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치지우면서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름 즉 기표는 ‘주체’를 구성해주지만, 그 ‘기표’는 자신이 아닌 타자이다. 따라서 ‘주체’는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된다는 것이 라캉의 논리이다.

라캉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어를 사용하며 이와 더불어 오이디푸스 단계들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라캉에게 ‘무의식’이란 어떤 개인이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그로 하여금 인간의 문화질서 하에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태어난 하나의 유기체가 하나의 인간으로, 다시 말해 ‘인간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을 주목한 것이다.

2. 유식학의 ‘알라야식’과 ‘명언훈습’

라캉이 현 세계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언어를 습득하며 사회 속에서 ‘주

10) *Ibid.*, p.148.

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주목한 반면, 불교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관찰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식학은 마음의 심층에 존재하는 '알라야식'에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결과가 저장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종자'라 불리었다. 그런데 유식학은 이것이 현생(現生)뿐만 아니라 전생(前生)을 포함해서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윤회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종자'들은 그 특성에 따라 각각 명칭이 부가된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명언熏습종자(名言薰習種子)', '아견熏습종자(我見薰習種子)', '유지熏습종자(有支薰習種子)'가 그것이다. '명언熏습종자'는 언어에 의한 개념적 사유작용의 결과물을 일컫는 말이며, '아견熏습종자'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자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칭하는 말이다. 이와 함께 '유지熏습종자'는 우리 자신이 육계·색계·무색계에서 윤회하도록 하는 사유의 결과물을 말한다.¹¹⁾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식학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하며 말하는 모든 작용이 '알라야식'에 흔적을 남긴다고 본다. 독특한 것은 '명언熏습종자'가 뒤의 '아견熏습종자'와 '유지熏습종자'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범위가 넓은 명칭이라는 점이다. 유가행파는 인간의 심리작용은 모두 언어의 작용이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마음의 작용결과는 '명언熏습종자'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유가행파는 모든 '종자'를 언어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보았다.¹²⁾

이것은 일견 라캉의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연상시킨다. 두 이론은 인간의 심층 즉 '무의식'과 '알라야식'에 언어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을 보인다. 하지만 라캉은 언어가 이미 사회체제 속에 존재하고 인간이 언어를 습득함에 따

11) 『攝大乘論本』(『大正藏』 31, p.137中) 참조.

12) 모든 '종자'를 언어활동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보는 것은 『解深密經』이래 유식사상에 일관하는 공통된 견해이다. 경론(經論)에 따라 그 표현방식이 다를 뿐이다(요코야마 코우이츠, 묘주 역, 『유식철학』(서울: 경서원, 1989). p.139. 참조).

라 ‘주체’를 형성하는 기반으로서의 ‘무의식’에 초점을 둔 반면, 유식학은 인간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한 결과가 내부에 쌓여 그것이 현현함에 따라 마음이 능동적으로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불교의 특징은 해탈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라캉의 이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불교는 해탈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을 제시한다. 특히 유식학에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수행으로 이끌게 되는 구체적인 언어의 작용을 ‘의언(意言, manojalpa)’이라고 부른다. ‘의언’은 마음의 속삭임이라고 일컬어지며, 명확한 말이 되기 이전의 어떤 개념을 발생시키는 상태, 혹은 말의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언’이란 이것저것의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대상, 이것은 인식주체라고 구분하고, 그 내용을 사유하는 작용을 하지만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즉 ‘의언’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의언’은 대상에 대해 헤아리는 작용인 심(尋, vitarka)과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보는 사(伺, vicāra)의 작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의언’은 개념적으로 분별하는 상(想, samjñā)과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혜(慧, prajñā)를 통해 언어로 사유하는 작용을 한다.¹⁴⁾ 이 모든 것은 외부로 발설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의언’은 사유와 분별을 통해 대상을 개념화시키고 집착을 일으키게 하

13) 안환기, 「진의 세계를 향한 디딤돌, 의언-『섭대승론』을 중심으로」, 『천태학연구』 제 16집(서울: 원각사상연구원, 2014), p.315.

14) 한편 하야시마 오사무(早島 理)는 ‘의언(manojalpa)’과 ‘명언(名言, abhilāpa)’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곧 ‘의언’은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언어의 작용을 말하며, ‘명언’은 외부로 표현되어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명언’이란 일상의 언어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설된 말로 본다. 그에 의하면 ‘의언’과 ‘명언’과의 형성관계에 의해 일상경험의 세계가 형성된다(안환기, 「진의 세계를 향한 디딤돌, 의언-『섭대승론』을 중심으로」, 『천태학연구』 제 16집(서울: 원각사상연구원, 2014), p.315. 각주 2번에서 재인용).

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의언’은 세속의 세계에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眞)’의 세계에 이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식학 경전 가운데 하나인 『攝大乘論』에 의하면 ‘의언’은 진리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이 마음에 쌓여 있던 것[정문훈습(正聞薰習)]에서 생겨난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교법을 많이 듣게 됨에 따라 그것들은 알라야식에 ‘정문훈습종자’의 형태로 저장되고 이후 이것이 현현하여 ‘의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⁵⁾ 여기서 언어활동은 세속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다. 집착이 가해져서 번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유작용이 아니라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사유를 진행시킨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라캉의 이론과 유식학은 ‘무의식’과 ‘알라야식’을 언어의 작용과 관련시켜 설명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라캉은 언어체계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존재하며 이를 통해 ‘주체’가 형성된다는 관점을 보인다. 반면, 유식학은 ‘명언훈습종자’의 현현에 의해 마음이 인식의 주체와 인식대상으로 나누어지는 마음의 능동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라캉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목한다. 반면 유식학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을 하는 동안 관찰된 내용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V. 라캉과 유식학의 인식구조

다음은 라캉과 유식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흥미롭게도 두 이론은 모두 3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구조화시켜 설명하고 있다.

15) 앞의 논문, p.318.

1.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주체’의 형성과정 및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상상계(Imaginary), 상징계(Symbolic), 실재계(Real)라는 범주에 의거해서 설명했다면, 유식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으로 표현했다. 라캉의 이론이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변화과정에 주목했다면 유식학은 주체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라캉의 3가지 범주를 살펴보기로 하자. 라캉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이론화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1930-1940년대에 상상계, 1950-1960년대 초까지는 상징계,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재계가 라캉 사유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 구분은 단지 이론적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세 범주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삶의 영역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¹⁶⁾

라캉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미지’를 매개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그는 ‘거울단계’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거울을 처음 본 아이는 거울 속의 이미지가 ‘자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자아’로 알아본다. 이때가 바로 인간이 자신을 최초로 인식하는, 즉 ‘자아’가 발견되는 순간이다. 이 ‘자아’는 거울이라는 타자를 통해 비로소 구성된 ‘자아’이다. 따라서 한낱 이미지에 불과한 대상을 통해 나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대상화된 ‘자아’를 통해 인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타자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과 ‘나를 비추는 이미지’사이의 분열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를 비추는 이미지’는 완벽한 이미지가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분열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라캉의 해석이다.

16) 김석,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으로의 초대』 (서울: 김영사, 2010), p.112.

그러나 라캉은 자기가 아닌 타자를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오인(誤認)하는 ‘상상적 질서’ 속에서 ‘자아’의 구성이 완결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자아’는 ‘상상적 질서’에서 ‘상징적 질서’로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자아’로 형성되어 나간다고 보았다.

라캉은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영역 즉 상징계인 언어, 법, 규칙 등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라캉은 오이디푸스 단계를 통해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욕망의 기표 S1은 아버지 이름의 기표 S2로 대체되어 무의식 속으로 사라지고 의식적 담론의 정면에는 S2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체’가 기표로 재현되어 탄생한다. 라캉은 주체탄생의 과정을 가족 구성원들 간의 현실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징적 기호 S1-S2의 관계로 해석했다.¹⁷⁾

라캉에 의하면 언어를 사용하려는 어떠한 개인도 그 기호들이 조직되는 그 규칙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호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언어적인 규칙들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발화하는 주체는 언어에 종속되며, 나아가 “주체는 그 자신의 고유한 이름(기표)을 통해서만 자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¹⁸⁾ 이를 달리 말한다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 언어적인 구조에, 즉 기표를 조직해내는 규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캉의 이러한 해석은 하나의 개체가 문화 속에서 인간이라 불리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가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체가 인간을 둘러싼 문화적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라캉은 ‘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개인은 주체가 된다고 생각했다. 개개의 주체가 갖는 동일성은 결국 타자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17) 박찬부, 『라캉: 재현과 그 불만』(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p.88.

18) J. Lacan, *Ibid.*, p.148.

라캉은 언어가 인간주체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레비스트로스, 소쉬르 등 구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상징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킨다. 라캉에게 있어서 상징계는 무의식, 대타자, 부재, 결여의 영역, 그리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이 욕망을 규제하는 법, 더 나아가 법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협약의 영역을 의미한다.

라캉의 상징계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속하게 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주체적 인간에게 결여로 남는다. 그래서 인간은 보다 완전한 곳인 실재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영역이기도 하다. 욕망은 상징계의 질서에 갇혀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그 너머가 바로 실재계이다. 실재계란 욕망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점이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다. 그 세계는 상징계가 균열을 일으키거나 구멍이 뚫릴 때 언뜻언뜻 드러날 뿐이다.

2. 유식학의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

유식학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외부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의 마음 상태 즉 의타기성(依他起性),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의타기성은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인연이 흩어지면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상이 떠올랐을 때 그 영상은 독자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심층의 알라야식에 존재하는 ‘종자’가 발현되어 마음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져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다. 의타기성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화합됨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변계소집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상이 떠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가 생겨날 때 인식의 주체는 인식대상에 대해 분별작용을 일으키면서 인식작용이 시작된다. 예컨대 우리의 마음에 사과가 떠올랐을 때 인식의 주체인 나는 그 사과의

색과 모양 등을 살피면서 사과의 종류가 부사인지 홍옥인지 등을 개념화시킨다. 그리고 그 사과를 먹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킨다. 즉 사과를 집착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원성실성은 진실성(眞實性)이라고도 하며 의타기성의 마음으로부터 허망한 분별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의타기성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때 바로 변계소집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즉 의타기성의 진실을 각성하는 것이 바로 원성실성이다.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은 불일불이(不一不二)의 관계이다. 의타기성에서 변계소집성인 주체가 원성실성의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원성실성의 경지에서 의타기성의 상(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미망에 싸여있는 것은 변계소집성이며, 자기를 깨닫는 것은 원성실성이다.

유식학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마음을 3가지 구조로 분석한다. 인식대상에 대해 욕망이 고착화된 상태인 변계소집성은 수행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즉 세속적 욕망을 소멸함으로써 현상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원성실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강이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누고 각각을 언어와 주체 그리고 욕망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 반면 유식학은 수행을 통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인식의 구조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라강과 유식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극의 경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고 각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경지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V. 라캉의 실재계와 유식의 원성실성(圓成實性)

1. 라캉의 실재계와 ‘승화’

라캉에게 있어서 욕망의 주체는 상징계에 의해 형성되지만 상징계는 타자이기 때문에 결코 주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욕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상징계는 구조적으로 욕망의 주체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라캉은 상징계가 결코 동화시키지 못하는 범주인 실재에도 주목했고 이 문제의식을 심화시켰다. 1960년대 이후 라캉은 상징계에 저항하면서 주체의 삶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불안의 대상인 실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체가 존재결여(manque à être; lack of being)때문에 욕망하는 존재가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존재(être, being)가 바로 실재에 속한다.¹⁹⁾ 실재는 주체의 욕망이 대타자의 욕망에 머물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그 너머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상징계로 진입한 주체가 왜 항상 결여와 불안을 안고 사는지에 대한 라캉의 답이다.

라캉에 의하면 실재는 언제나 언어와 이미지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언어가 유발하는 결여의 작용 즉 환각, 꿈, 히스테리나 강박증의 증상과 같은 임상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연구하면서 라캉은 상징계와는 다른 영역인 실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캉에 따르면 실재는 상징계에 의해 현실에서 배제되는 영역이다. 헤겔이 말한 바와 같이 ‘언어가 사물의 살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재는 기표에 의해 표현되면서 기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칭한다. 인간은 말을 배우면서 상징화된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라캉의 논리에 따르면 상징에 의해 배척된 것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징계가 그것을 배척하지만 실

19) J. Lacan, op. cit., p.149.

재는 늘 돌아온다는 뜻이다.²⁰⁾

그렇다면 실재는 어떻게 회귀되는가? 라캉은 실재의 회귀는 보통 환각이나 꿈같이 주체의 의지를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실재가 돌아오는 경험은 주체에게 언제나 낯설면서도 친숙하다. 주체는 기표간의 차이의 논리를 통해 구성된 상징계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틈을 통해 나타나는 실재의 모습에 낯설다. 하지만 실재계 또한 우리와 같은 현실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숙한 것이 된다. 라캉에 의하면 실재는 충만하며 전혀 틈이 없는 영역이다. 기표는 충만한 실재의 영역에 분할과 대립의 구조를 도입하여 상징계라는 현실을 구성한다.

라캉은 이러한 실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써 ‘승화’를 제안했다. 라캉에게 ‘승화’는 하나의 대상을 물[실재]의 품격으로 고양하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하나의 사물이 ‘승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물이 접근 불가능한 실재계의 대타자를 구현하는 대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재하는 결여의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성을 획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승화’는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물 자체를 체현하는 비범한 대상으로 바꿈으로써 주체에게 실재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작업이다. 주체는 이 평범한 사물을 경유하여 비범한 실재 대상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승화’는 따라서 대상을 향한 주체의 누를 수 없는 욕망에 만족을 가져다준다.

‘승화’는 일견 종교적 경험을 연상시킨다. 엘리아데가 제시한 ‘성(聖)’과 ‘속(俗)’의 정의에 의하면 ‘성’은 흔한 보리수나무가 붓다가 그 아래에서 득도를 한 후 비범하고 초월적인 성스러운 존재로 경험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산길에 널려 있는 돌들 가운데 하나를 집어 정성스럽게 돌탑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 후 그 돌을 바라볼 때, 그 돌이 이전과는 달리 성스러운 존재로 경험되는 현상을 우리는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평범한 사물을 비범한 실재로 고양시키는 ‘승화’의 한 현상일 것이다.

20) 자크라캉, 맹정현·이수련 역, 『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11 (서울: 새물결, 2008), pp.85-87.

같은 맥락에서 ‘승화’는 예술적 창조행위와도 관련을 맺는다. 예술이 재현을 통해 감각 너머의 실재를 드러내는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승화’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 속에서 재현할 수 없는 물의 품격을 발견하는 미적 창조의 성격을 띠게 된다.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이 예술적 창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라캉의 ‘승화’ 개념은 프로이트의 ‘예술적 창조’라는 특성을 여전히 내포하면서도 그것을 더욱 급진적으로 확장한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이미 부여된 제도권 예술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창조적 행위를 예술로 포괄하는 활동이 된다.

이와 같이 ‘승화’는 예술의 기원과 그 역할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미학적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승고한 대상인 물과 현실적으로 등가물이 되는 것을 찾는 욕망에 ‘승화’의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욕망은 한편으로 언어에 의해 촉발되고 대타자의 욕망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는 것에서 상징계적 작용에 종속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욕망은 상징계의 작용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라캉에게 있어서 욕망의 최종 귀착점은 실재에 대한 충동인 죽음 충동 즉 주이상스이다. 결국 실재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후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곳은 상징계 속에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²¹⁾

2. 유식학의 ‘무분별지’와 ‘수행’

라캉의 이론에서 실재는 기표로 표현되면서 상징계 너머로 사라지지만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캉은 상징계 속에서 실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이 ‘승화’에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유식학은 궁극의 경지인 원성실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라캉과 차이를 보인다. 원성실성은 수행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정의된다.

21) J. Lacan, *op. cit.*, p.148.

그렇다면 유식학에서는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할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해탈에 이르기 위한 열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정문훈습종자’의 발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문훈습종자’는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됨에 따라 ‘알라야식’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종자’가 현현함으로써 일상인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후 수행자는 오랜 기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질적인 변화[轉依, āsraya-parāvṛtti]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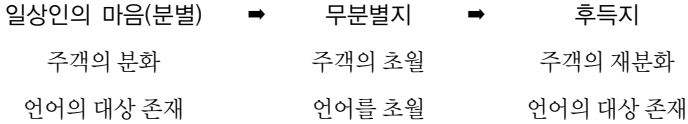
유식학에서는 일상인들의 언어작용을 ‘식’의 분화로 설명한다. ‘알라야식’에 존재하던 ‘명언훈습종자’의 발현으로 인해 ‘식’은 인식 주체로서의 ‘식’과 인식 대상으로서의 ‘식’으로 분화된다. 분화된 인식의 대상은 언어로 표현되면서 타인과 공유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수행과정에서도 그대로 진행된다. 수행자들이 마음에 떠오른 영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과정 또한 ‘식’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영상을 인식의 주체가 바라보는 과정이다.

이후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수행자는 마음의 질적인 변화[轉依]를 경험하면서 ‘무분별지(無分別智)’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무분별지란 분별이 없는 단계 즉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단계가 된다. 이때에는 인식 주관이 인식의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상언어의 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진여(眞如)’의 영역에서는 일상언어작용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식’의 분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경지는 일상언어를 초월한 영역으로 일컬어진다.

이후 수행자는 다시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자각하는 ‘후득지(後得智)’를 체득하게 된다.²²⁾ 보살은 ‘후득지’를 증득하면서 ‘무분별지’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보살이 인식작용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험내용을 대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작용은 인식주관이 인식객관[무분별지에서 경험

22) 『攝大乘論釋』(『大正藏』 31, pp.244上10-11), “論曰。無分別後智有五種。謂通達憶持成立相雜如意。顯示差別故”。

한 내용을 파악하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주객의 ‘재분화’라고 칭하고자 한다.²³⁾



보살은 ‘무분별지’를 넘어선 ‘후득지’를 증득하면서 자신이 본 영역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보살이 자각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식’이 다시 분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보살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인식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언어의 작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보살은 자신이 ‘무분별지’의 경지에서 통찰한 내용을 중생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의 사회활동은 바로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 보살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타인과 관계를 맺되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객이 ‘재분화’되어 언어작용을 일으켜도 보살의 언어작용은 일반인들이 언어작용을 일으켜 그것을 ‘종자’의 형태로 ‘알아야식’에 흔적을 남기는 것과 다르다. 보살은 인식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로 인해 타인과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23) 안환기, 「유식불교의 언어관 연구-‘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언어의 역할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VI.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라캉의 이론과 유식학을 3가지 관점 즉 심리공간과 언어의 관계, 인식의 구조, 궁극의 경지 및 이 경지는 도달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라캉과 유식학은 불안, 소외 등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 탐구했으며 인간의 심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특성인 욕망과 언어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보인다.

하지만 라캉은 현생(現生)에 초점을 둔 반면 유식학은 윤회관에 입각해서 인간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3가지 관점에서 볼 때에도 두 이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라캉은 언어체계가 이미 경험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주체의 과정을 설명하지만, 유식학에서는 언어체계 또한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둘째, 라캉은 현실 세계 속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거쳐야 할 단계로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진입을 설명한다. 반면 유식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틀은 수행을 통해 변화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캉과 차이를 보인다.

셋째, 라캉의 실재계는 상징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욕망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점이지만 상징계 속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다. 라캉은 실재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써 ‘승화’를 제안했다. ‘승화’는 잃어버린 대상이 주는 존재결여의 공허감을 환상적으로 충족시키려는 활동이다. 반면 유식학의 원성실성은 욕망이 고착화된 집착이 사라진 상태로서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초월한 경지이다. 유식학에서는 수행을 통한 마음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궁극의 경지인 진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불교와 라캉 사이에는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결여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에 끊임없이 욕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 라캉의 생각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통찰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욕망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산물 즉 상징계에 의해 만들어진 욕망이기 때문이다. 유식학의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결국 사회 속에서 공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식’을 내 자신의 ‘식’으로 욕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攝大乘論本』(T31) (*T: 大正新脩大藏經)
- 『攝大乘論釋』(T31)
- 『攝大乘論釋論』(T1596)
- 『成唯識論』(T1585)
- 『解深密經』(T16)

2. 단행본류

- 김석,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으로서의 초대』, 서울: 김영사, 2010.
- ____,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파주: 살림, 2007.
- 라캉, 자크, 맹정현·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 정신분석의 네가지 근본 개념』,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
- _____, 『욕망 이론』, 권택영 엮음,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르메르, 아니카, 『자크 라캉』, 이미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서울: 창비, 2007.
- _____, 『라캉: 재현과 그 불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 베르트랑 오질비, 『라캉, 주체 개념의 형성, 1932-1949』, 김석 역, 서울: 동문선, 2002.
- 소쉬르, 페르디낭,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민음사, 1990.
- 요코야마 코우이쯔, 『유식철학』, 모주 역, 서울: 경서원, 1989.
- Boquist, Åke, *Trisvabhāva: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Three-nature-theory in Yogācāra Buddhism*, Sweden: Dept. of History of Religions, University of Lund, 1993.
- Fink, Bruce,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5.
- Lacan, Jacques, *L'angoisse: 1962-1963*, Paris: Seuil, 2004.
- Moncayo, Raul, *The Signifier Pointing at The Moon: Psychoanalysis and Zen*, Karnac, 2012.
- Schmithausen, Lambert, *Ālayavijñāna: On the Origin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a Concept*

3. 논문류

- 김석, 「선의 윤리와 순수 욕망의 윤리: 크레온과 안티고네를 중심으로」, 『한국미학 예술학회지』 제38호, 서울: 한국미학예술학회, 2013, pp.69-100.
- _____, 「소외와 분리」,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0권 2호, 서울: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08, pp.55-76.
- 박범석,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 - 라깡의 구조주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3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pp.1-17.
- 박찬부, 「대타자에 대한 주체의 위치 - 라깡의 성담론」, 『영어영문학』 51, 2005, pp.69-98.
- _____, 「실재와 상징 - 라깡의 재현론」, 『영미어문학』 67, 2003, pp.117-134.
- 안성두, 「인도불교 초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 유가사지론의 三性和 五事を 중심으로」, 『인도철학』 23, 2007, pp.199-239.
- _____, 「진여의 불가언설성과 佛說 - 초기유식문헌을 중심으로」, 『천태학연구』 10 2007, pp.229-258.
- 안환기, 「진의 세계를 향한 디딤돌, 의언 - 『섭대승론』을 중심으로」, 『천태학연구』 제16집, 서울: 원각사상연구원, 2014, pp.311-336.
- _____, 「욕망의 주체에 의한 ‘심상(心像, samjñā)’의 언어화 - 유식불교 ‘변계소집성’과 라깡의 ‘상징계’를 중심으로 -」, 『회당학보』 제18집, 서울: 회당학회, 2013, pp.349-380.
- _____, 「유식불교(唯識佛敎)의 언어관 연구 -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언어의 역할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이도흠, 「불교철학 심화의 방편으로서 서양 인문학의 탐색」, 『석림』 35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2000, pp.75-101.
- 임진수, 「무의식의 언어에 관하여」, 『새한영어영문학』 제52권 2호, 서울: 새한영어영문학회, 2010, pp.117-139.
- _____, 「라깡의 언어 이론(2) - 은유와 환유」,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25집, 서울: 한국프랑스학회, 1998, pp.565-581.
- _____, 「라깡의 언어 이론 - 기호 표현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33권 2호, 서울: 한국불어불문학회, 1996, pp.1121-11128.

A Comparison of *Tathatā*[眞如] in *Yogācāra* with Real[Réel] in the Theory of Jacques Lacan

Ahn, Hwanki
Researcher
Institute of Philoso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research paper, I tried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athatā* [眞如] in *Yogācāra* and that of Real [Réel] in the theory of Jacques Lacan. And I also clar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pts. Though the *Tathatā* and Real are the destination to reach in each theory, a comparative study on the two concepts has not been carried out. Previous study has been confined to the concept of ‘desire’ and ‘language’.

So I firstly examined ‘Unconsciousness’ in Lacan and ‘*ālaya-vijñāna*’ in *Yogācāra* in connection with the ‘language’. Subsequently I compared ‘Imaginary’, ‘Symbolic’, ‘Real’ with ‘Imagined or contrived points of view [遍計所執性]’, ‘Dependent origination [依他起性]’, ‘The complete and perfect real nature [圓成實性]’ in view of the cognition structure. Based on that study, I discussed each view of the destinations and the possibility to reach the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acan explained the process of forming the subject under the premise that the system of language existed before experiencing it. But in *Yogācāra*, it is formed by the active subject from the divided *vijñāna*. Second, Lacan elucidated that the approach from Imaginary to Symbolic was the stage man experienced naturally in this lifetime, whereas in *Yogācāra*, the three cognition structure is changed by the practice in the worlds like the previous life, this life time and the future rebirth. Third, the ‘Real’ existing beyond the ‘Symbolic’

is the final stage of the ‘Desire’ in Lacan. But it is the world where we can never arrive in the ‘Symbolic’. So Lacan suggested that ‘Sublimation’ is the way to reach there. According to Lacan, ‘Sublimation’ is the activity fantastically satisfying the sense of emptiness from the lack of being caused by the loss of the object. Meanwhile ‘The complete and perfect real nature’ is the phrase that there is no attachment to the object. It is the stage transcending the division of the subject and object. *Yogācāra* claimed that we can experience it through qualitative change of mind by practice.

Yogācāra and Lacan both were eager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like pain, anxiety, uneasiness, etc. While they were at it, they established the systemic theory of human mind. Thanks to this theory, we are able to find the key to the common human problems in depth.

Keywords

Tathatā, Real, Desire, Language, practice, Sublimation

2015년 11월 05일 투고
2015년 12월 04일 심사완료
2015년 12월 05일 게재확정